

自然保存의 미래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에 있다

■ 편집부



● 한국자연보존협회는 오랜 연륜과 함께 설립 이래 동식물 생태계에 대한 학술조사와 보고서발간 등 학술연구사업에 뚜렷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협회의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63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자연보호에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학술조사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것은 '65년에 "한국자연보존위원회"로 개칭되었고, '67년에는 "한국자연보존연구회"로, 다시 '74년에 이르러선 현재의 한국자연보존협회로 개칭되었죠.

감독관청도 당시 천연기념물 명칭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문화재관리국을 시발로 내무부산림청에서, 다시 내무부로 이관되었다가 지난해 4월 환경처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독관청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느끼시겠지만 우리 협회는 시대변화에 따라 그 당시 자연보호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관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요.

우리 협회의 목적은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연구와 보존사업 및 이에 관한 지식의 보급으로 자연보호정신을 함양하며 국민의 생존과 국가 번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존,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자연 및 자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계몽 및 간행물발간 △동식물자원의 증식 이용에 관한 사업 그리고 국내외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유대사업 등을 추진해왔어요.

그간의 실적들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적은 예산이나마 꽤 많은 일을 수행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근엔 환경보전이 강조되고 있고,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쓰레기잡는것이 곧 자연보호라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는데요, 창립초기부터 협회에 참여해오신 회장님께서 그 때와 비교해볼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정부차원의 자연보호운동의 성과로 국민들의 자연보호사상도 상당히 고취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상용어가 되다시피했지만 협회가 창설되던 그 때만해도 '생태계'란 용어는 학자들 간에나 통용되던 말이었지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면, 즉 개발보다 자연보존을 우위에 두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보존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덕유산, 지리산 등의 국립공원이 스키장이다 뭐다해서 파헤쳐져 있고, 심지어는 그린벨트까지도 갖가지 명목과 구실로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연보호측면에서 어떤 악영향이 초래될 것인가에 대해선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해안이 개척되고 매립되어 가고있고요. 또 수질, 공기, 토양 등 주변 환경오염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에 저는 우리 협회도 가입돼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약칭 IUCN)총회에 다녀왔는데, IUCN이 사용한 인류와 자연간의 조화를 이룩하자는 슬로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찌기 「莊子」에도 “天地與我並生勿萬物與我爲一”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지가 나와 더불어 살고 모든 만물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이것 또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가 아니겠어요?

●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흔히들 혼용되고 있는 ‘자연보존’과 ‘환경보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은 어떤 주체에 대한 그것의 외위(外圍)를 말합니다.

흔히 환경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나뉘지요. 여기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위는 생활환경이라고 하고, 생물의 개체나 개체의 집단이 주체가 되는 외위를 자연환경이라 합니다. 결국 자연환경은 넓은 의미의 자연전체를 뜻하죠.

한편 생활환경은 환경오염방지에, 또 자연환경은 자연보호와 보존에 역점을 둡니다.

물론 환경오염방지와 자연보존은 유기적으로 결부돼있으니까 자연환경보전은 곧 자연보존의 문제라 할수있는거죠.

● 1년째 협회를 이끌어오시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협회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앞서 잠시 얘기됐지만 그간 수행해온 자연보전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자연보존’지의 발간, 자연보전사상고취, 우리나라의 고유 및 희귀동식물과 식물의 실태조사 그리고 해역조사나 보존지역의 선정등 연계적인 사업들을 더욱 충실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장기계획도 마련했구요. 또한 환경처의 자연환경시책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겁니다.

이와함께 자연보존에 관한 국제적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환경보전이나 자연보존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로, 많은 문제를 국가단위로 대처해나가고 있지만, 범세계적으로 대처해나야할 문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국제자연보존연맹이나, 세계자연기금회등은 지구의 온난화, 에너지와 산업의 지속적개발등을 포함하고있는 1990년대 세계보존전략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지자제가 실시되면 자연훼손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만, 김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현실은 자연환경보존보다 국토개발이 우위에 있으므로 지자제가 실시되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개발위주로 달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연보존과 관련이 있는 법령은 50가지도 넘습니다. 거의 개발위주의 법령들이지요.

다행히 개발보다 자연보존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이 입법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제정, 공포되면 일방적인 개발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제정되어야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자연보호운동활동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제가 실시되면 현재 협회의 지부활동을 활성화시켜 그 지방의 자치단체와 연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사) 한국자연보존협회

● 창립년도 : 1983. 12

● 학회임원명단

회 장 김훈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부 회 장 임양재(중앙대학교 교수)

서울지부장 박봉규(전 이화여자)

인천·경기도 지부장 홍사욱(성균관)

부산·경남도 지부장 강제원(부산수산대학 교수)

광주·전남도 지부장 위인선(전남대학교 교수)

대구·경북도지부장 정 준(경북대학교 교수)

강원도 지부장 조규송(강원)

충남도 지부장 박종성(전 충남)

충북도 지부장 김창한(충북)

전북도 지부장 송형호(전주교육대학 학장)

제주도 지부장 신상범((주)한영상사 대표)

● 정기활동내역

동식물생태에 대한 학술조사와 보고서 발간

강연회 및 자연보존교육, 계몽지 및 자료발간

●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

임업연구원 전화/962-2894, 963-3160